

특집 북한도시연구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평양시 상권분석과 정치경제적 함의*

유형화와 발달 요인을 중심으로

Pyongyang's Commercial District:

Typology and Development Factors with Political Economy Implications

황주희**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평양시의 상권분석을 통해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양시의 상권은 상업시설 입지에 따라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 시장상권으로 유형화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상권이 발달하는 요인을 상품의 공급 확대, 구매력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평양 상권의 정치경제적 함의는 첫째, 북한 당국의 통제에 따른 상권의 형성과 발달, 둘째, 평양의 발달된 상권은 당국의 재정 확보에 기여 셋째, 평양의 상권에 북한 당국의 경제 시스템 투영이다.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공간으로 조성된 평양의 공간적 성격이 북한 당국의 주도하에 상권이 발달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합된 성격으로 도시공간에 가시화되고 있다.

주요어: 북한, 평양, 상권분석, 도시, 상업, 백화점, 국영상점, 시장

* 본고는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2023, 홍민·김혁·차문수·황주희)에 기반하며,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재작성, 보완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과 동료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juhee@kinu.or.kr)

1. 서론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의 상권 분석을 통해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로써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공간적으로 가시화하였다. 평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북한에 시장이 만연해지고 북한이 시장경제 원리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하는 평양의 공간적 상징에도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상권 발달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하면서 계획을 통해 경제를 관리해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은 의미가 없으며 상권은 발달하지 않는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일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김정은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발표되면서 그 경계가 누그러지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북한은 시장경제 원리를 일정 부분 제도로 포섭하면서 기업의 영리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기업은 공식적으로 자체 판매 활동이 가능해졌다. 국영상업망 역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침체로 국가배급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이에 따라 국영상점의 운영이 사실상 중지되었다. 2010년에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확대한 일부 돈주가 상점을 임대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북한 당국 역시 국영상점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국영상점망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과거 배급의 역할에서 현재는 판매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백화점도 과거에는 전시의 역할만을 하였다면 지금은 판매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시장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북한에서 상권이 발달되고 있는 것이다.

평양의 도시공간 연구로 이시효(2016)는 시장도입 초기 평양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도시공간의 불평등성과 북한 정권 유지의 수단이 강화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곽인옥·문형남(2018)은 평양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유통구조

변화, 생산구조 변화, 금융구조 변화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양 지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도시공간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혔다. 박희진(2018)은 시장화 이후 북한의 도시와 지역 공간의 구조적 변화를 사회경제적·지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상업과 관련되어서는 시장의 외형 변화와 입지에 관한 연구(정은이, 2016), 북한의 상업 활동 변화(김영희·김병욱, 2015)와 ‘도시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평양시의 백화점 공간을 해석한 연구가 있다(박희진, 2021). 본 연구와 가까운 연구로 혜산시의 중심지를 상업시설 중심지, 권력기관 중심지, 산업시설 중심지로 구분하여 부동산 가격 실태 및 그 함의에 대한 연구(김병욱, 2021), 평양의 부동산 가치변화를 파악한 연구(정은이, 2018)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진행되어 왔던 선행연구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평양시의 상권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특히 평양의 상권을 유형화하고 그 발달 요인을 분석하여 정치경제적 함의를 밝힌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공급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평양시의 사회주의 상업시설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사회주의 상업시설은 상점, 백화점, 시장으로 한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김정은 집권 이후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시의 상업시설(상점, 백화점, 직매점)과 관련 기사 738건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 시기에 보도된 상업시설은 정상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정보는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을 활용하였다. 북한 상업시설의 지리정보는 구글어스와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주요 도시 경제 인프라 지도」(2023)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평양에 상권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 논문을 구성하였다. 2절에서 평양의 상업시설 입지를 중심으로 평양의 상권을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상권으로 유형화하였다. 3절에서는 평양의 상권 발달의 요인을 공급의 확대, 구매력의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분석한다. 4절에서는 평양 상권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5절은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평양의 상권과 유형

상권의 사전적 정의는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 2024.5.9),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4.5.9)이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17: 1244) 역시 상권을 “상업상의 세력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남한은 상권을 크게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 관광특구로 구분한다. 남한에서 정의하는 골목상권의 개념적 정의는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영위, △도보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에 형성되는 상권, △대형 유통시설을 상권 영역에 포함한 점포 제외, △대로, 로를 제외한 길 단위로 구성, △30개 이상 점포 수를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 등이다. 발달상권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 50개 이상의 상점이 분포하는 경우 상점가라 하고, 배후지를 고려하지 않은 도보 이동이 가능한 범위 내의 상가업소밀집지역, 도매·소매·음식·숙박·생활서비스·금융·부동산·학문·교육·의료복지·문화예술종교·관광여가오락 등의 8개 업종대분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정의한다. 전통시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을 의미한다. 관광특구상권은 “관광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적 공간 내 입지한 상권”을 말한다(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검색일: 2024.6.17). 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상권’을 동의어로 취급하며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라는 상권의 사전적 정의를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특구를 제외하고 평양시의 상권을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상권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평양의 상권 발달 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평양시의 골목상권은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에 형성되는 상권으로 소매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보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대형 유통시설을 제외한 국영상점 중심의 상권으로 개념화한다. 평양시의 발달상권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시설을 포함한 상권으로 정의한다. 평양시의

전통시장 상권은 북한의 종합시장 상권으로 정의한다.

1) 평양시 골목상권

북한에서 상점이란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놓고 상품을 직접 파는 상업망의 기본단위”를 뜻하며 수매상점은 “물품을 수매받거나 그것을 다시 파는 상점”을 말한다. 종합상점은 “주민들의 여러가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목적 밑에 공업품과 식료품을 아울러 파는 상점”으로 “여러개의 상점을 망라하는 독립채산제기업체”로 정의된다. 직매점이란 기관, 기업소가 생산물의 일부를 직접소비자에게 파는 상점을 일컬으며 구역직매점은 8월3일인민소비품¹⁾을 판매한다(황주희, 2023: 120).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신문》 보도에서 확인되는 평양 상점은 216개다. 북한은 1961년에 발간한 주요 경제통계집을 통해서 1953년 204개(전국 3,059개), 1956년 349개(전국 4,644개), 1959년 593개(전국 8,697개), 1960년 기준 612개(전국 9,058개)의 평양 국영상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백인주, 2024: 233).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평양의 국영상점은 1950년대 초기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상점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평양 상점의 수는 《노동신문》의 보도로 확인되는 상점의 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 상점의 분포는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 순으로 나타난다. 대동강 북안의 전통적 평양 중심지로 일컫는 북한의 본평양 구역은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으로 상점 보도의 47.6%가 본평양에 위치한 상점으로 파악된다. 상점의 보도 빈

1) '8월3일인민소비품'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에서 유희자재와 폐기물, 폐설물,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생활소비품으로 국가계획상에는 없는 제품”을 뜻한다(김갑식 외, 2021: 813)

〈표 1〉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구역별 평양 상점 수(2012~2023)(단위: 개)

지역	상점 수						
평천구역	29	대동강구역	16	동대원구역	7	사동구역	2
중구역	27	대성구역	14	려명거리*	6	형제산구역	2
보통강구역	20	선교구역	13	룡성구역	4	강남군	1
모란봉구역	17	서성구역	10	강동군	3	삼석구역	1
만경대구역	17	락랑구역	9	력포구역	3	기타	15

주: *려명거리의 경우 대성구역과 모란봉구역에 걸쳐서 위치, 지역명 대신 려명거리로 구분
 자료: 황주희(2023: 122)

도를 상점의 운영 활성화 정도로 가정한다면, 북한의 상점은 대동강 북안의 전통적 평양 중심지를 중심으로 국영상점의 기능이 복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점의 규모면에서도 대동강 북안, 즉 본평양에 위치한 상점이 평양의 외곽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평양에 상점이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국영상점을 재개하면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의 면에서 보았을 때 대동강 이북 지역을 보다 유리한 입지로 판단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매점의 경우 상점에 비해 그 종류와 보도 빈도가 낮으며 보도된 직매점은 대부분 평양의 외곽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직매점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4년 보도에 따르면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이 2013년 대비 1.7배 상승하였다(《노동신문》, 2014.3.19). 2020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113%, 2022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116%로 수행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노동신문》 2020.4.13; 2022.2.8). 북한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기간 평양시에서는 100여 종에 75만여 점의 각종 수지제품과 철제일용품이, 평안남도에서는 150여 종에 28만여 점의 세소상품을 생산했다. 북한은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계획을 미달한 단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소비품 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노동신문》, 2022.8.3).

북한은 도시를 계획할 때, 탁아소, 유아원, 식료품 등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주거지역 내에 배치하고 백화점과 같이 이용 빈도가 낮은 시설은 도

〈표 2〉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의 직매점(2012~2023)

상업시설명	위치
강동군 직매점	강동군
대동강구역 직매점	대동강구역
대성구역 직매점	대성구역
동대원구역 직매점	동대원구역
락랑구역 직매점	락랑구역
력포구역 직매점	력포구역
만경대구역 직매점	만경대구역
선교고려약공장 직매점약국	선교구역
선교구역 직매점	선교구역
평천구역 직매점	평천구역
평천고려약공장 직매점	평천구역

자료: 황주희(2023: 128)

시의 중심에 배치하였다(김원, 2004: 243). 평양시의 상업망 배치와 공급은 국가 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하고 있으며, 살림집과 그 구획관리는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평양시의 산업면적비 역시 규정되어 북한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국가정보원 편, 2022a: 185~190).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상점의 위치는 시장보다는 주거지역과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상권에 비해 근린 생활권에 위치하여 거주인구의 소비조건이 주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신설된 아파트의 경우 주상복합 형태로 1층에 여러 상점이 입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FA》, 2023.3.31). 근린 생활권에 위치한 도로, 길목에는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메뚜기장²⁾이 퇴근시간에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24.4.17). 최근에는 ‘도매’라고 하여 개인이 집에서 상거래를 진행하는 현상도 파악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상업 활동을 해오던 현상은 이전부터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현상이었다(양문수·윤인주, 2016: 45~88). 이러한 추세가 북한 당국의 국영상점 활성화 정책과 연결되면서 주택가에 국영상점을

2) 단속을 피해 장사를 다니는 것으로 일명 ‘메뚜기 장사’라고 한다.

중심으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점조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평양시 발달상권

북한에서 백화점은 “여러가지 상품을 갖추어놓고 그것을 품종에 따라 매대 별로 갈라 파는 큰 규모의 상점”으로 정의한다(사회과학출판사, 2017: 1054). 2012~2023년 기준,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평양의 백화점은 중복을 제외하고 총 11개로 파악되었다. 이 중 6개의 백화점이 중구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구역에 위치한 백화점은 평양제1백화점, 평양제2백화점, 락원백화점, 평양수산물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 평양아동백화점이다. 이 외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보통강백화점, 모반봉구역의 서평양백화점, 선교구역의 동평양백화점, 대동강구역의 대성백화점, 만경대구역의 광복지구상업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 지리적으로 평양의 백화점은 동평양백화점과 대성백화점을 제외하고 모두 대동강의 강북지역에 있다.

백화점의 경우, 고위 간부와 돈주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 알려진 만큼 고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대성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의 경우, 수만 달러에 달한다(《RFA》, 2023.7.3). 그만큼 큰 자본이 집중되어 백화점은 주변의 소규모 상권을 수용하여 더 넓고 강한 상권을 가진다. 이외 북한의 상권 조성과 관련한 시도로 2014년 상업중심거리 조성을 위해 착공한 ‘동평양지구상업거리’가 있다.³⁾ 규모가 큰 국영상점, 백화점과 같은 상위서비스 대형판매시설은 발달상권을 조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의 주택지구 건설도 발달상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

3) ‘동평양지구상업거리’는 착공 기사가 보도된 2014년 이후 《노동신문》에서 관련 보도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고 있다. 신설된 미래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인근에는 평양제2백화점과 평양역전백화점이 있다. 락원백화점과 서평양백화점 사이에는 보통강 강안다락식주택구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새롭게 조성된 창전거리와 '경루동800세대 살림집지구'는 평양제1백화점과 평양수산물백화점, 락원백화점 등이 근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경루동 800세대 살림집은 평양의 초호화주택으로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핵심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의 주택지구 건설을 통해서 평양 백화점의 지리적 공간은 최소요구치(threshold)가 강화되었다. 최소요구치는 점포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의미한다. 북한의 백화점은 사치품, 고가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데,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구가 인근에 들어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화점 인근의 주택지구 건설로 구매력을 겸비한 잠재고객이 확대됨으로서 발달상권은 예상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으로 그 위치가 더욱 공고화되었다. 즉, 상권의 거래권이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평양아동백화점 인근에는 2020년에 평양청년공원야외극장이 건설되었다. 이로써 소비자를 유입하는 흡인력이 보다 확대되었다.

3) 평양시 전통시장상권

평양의 중심구역은 행정적으로 중구역, 보통강구역, 대성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 낙랑구역, 대동강구역으로 평양시에 위치한 약 14개의 시장이 중심구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2003년부터 종합시장을 공식화하였는데, 공식시장의 입지를 도심외곽에서 도심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평양의 하신시장의 경우 대로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홍민 외, 2022: 82).

평양의 시장을 규모면으로 파악하였을 때, 2천 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시장의 62.5%가 평양의 중심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평양의 외곽에 위치한 시장보다 중심구역에 위치한 시장일수록 상권이 더 활발하다는

〈표 3〉 2022년 기준 평양의 공식시장

No	시장명	위치	No	시장명	위치
1	강남시장	강남읍	17	삼석시장	삼석구역(읍) 문영동
2	강동시장	강동읍	18	상리구시장	상리노동자구
3	고비구시장	고비노동자구	19	남교동시장	서성구역
4	낙량시장	낙량구역	20	하신시장	
5	원암동시장		21	대흥동시장	선교구역
6	통일거리시장		22	송가리구시장	송가리 노동자구
7	소룡1동시장	대동강구역	23	석박동시장	순안구역
8	대리구시장	대리노동자구	24	역포시장	역포구역
9	능라2동시장	대성구역	25	용궁2동시장	룡성구역
10	용흥시장		26	배산동시장	은정구역
11	문신1동시장	동대원구역	27	과학동시장	
12	당상시장	만경대구역	28	중구시장	중구역
13	칠골시장		29	평천시장	평천구역
14	인흥시장	모란봉구역	30	신간2동시장	형제산구역
15	붉은거리2동시장	보통강구역	31	서포2동시장	
16	송신시장	사동구역			

자료: 홍민 외(2022: 139), 굵은 글씨는 평양의 중심구역을 의미함.

〈표 4〉 평양시 규모별 시장 현황

구분	시장명
3천 평 이상(7)	강동시장, 통일거리시장, 송신시장, 역포시장, 칠골시장, 하신시장, 평천시장
2천 평~3천 평 미만(9)	낙량시장, 능라2동시장, 서포2동시장, 남교동시장, 당상시장, 문신1동시장, 용흥시장, 대흥동시장, 소룡1동시장
1천 평~2천 평 미만(9)	대리구시장, 송가리구시장, 용궁2동시장, 강남시장, 중구시장, 석박동시장, 삼석시장, 인흥시장, 신간2동시장
1천 평 미만(6)	붉은거리2동시장, 과학동시장, 배산동시장, 고비구시장, 원암동시장, 상리구시장

자료: 김미연(2024: 156), 굵은 글씨는 평양의 중심구역을 의미함.

〈그림 1〉 평양의 상업시설 입지



자료: Google Map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것을 보여준다.

평양 상업시설 상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대동강 북쪽에 특히 발달상권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점의 47.6%, 백화점의 81%, 2천 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시장의 62.5%가 모두 평양의 대동강 이북의 중심 지역에 있다. 이 지역은 백화점, 국영상점 등이 집중하고 있어서 수요층이 확정적이고 리스크가 낮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평양 상권 발달의 요인 분석

상권이 발달하는 배경으로 크게 공급의 확대, 구매력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공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생산물이 자급자족의 형태를 넘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품질이 요구된다. 다량의 상품이 유입되면 상품매매에 대한 화폐 경제력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상권은 확대되거나 재편되는 등 조정된다. 구매력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정도를 말한다. 구매력의 경우, 지역의 인구 밀집도와 관계가 높으며 시장의 수요를 창출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교통의 발달을 의미한다. 교통이 발달하면 상품수송이 용이해지며 구매자의 접근성을 높여 시장을 성장시킨다(백남길, 2018: 169~175).

1) 상품 공급의 확대

북한 상품의 공급 확대는 국영상점망의 활성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북한의 국영상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질적인 폐업에 들어갔으나, 2003년 종합시장을 인정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국영상점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는 방식, 무역회사와 개인 등이 제품을 수입하여 국영상점에서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 등 국영상업 유통망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이후 2006~2007년 사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영상점 중 수익성이 높은 상점의 경영권이 북한 당국으로 환원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부터는 북한 당국이 국영상업망 복원에 주력하면서 20여 년 만에 국영상점이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로 종합시장, 국영상점, 직매점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황주희, 2023: 116~1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공급, 경공업 국산화, 소비품 다양화, 품질제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2012년 북한은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라!”라는 공동구호를 지정하였다. 2017년 북한은 보도에서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어느 상업망들에 가보아도 우리의 상표를 단 경공업제품들이 들어차 우리것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경공업 발전을 통한 공급 확대로 유통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경공업 공장의 본보기로는 원산구도공장,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가방공장 등이 언급되었다(《노동신문》, 2017.6.24). 2020년 북한은 본격적으로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에 대한 복원을 강조하고 국영 상업망을 통한 상품유통 활성화

를 요구하였다. 대규모 상업, 유통시설 등을 공공 부문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2021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국가적인 생산물, 수입물자 관리 및 유통사업을 강조하였다(《노동신문》, 2021.2.12). 기존의 상품유통은 ‘상업법’에서 일부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1992년 북한에 상업법이 제정된 이후로 상업법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3차례 개정되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의 사회주의 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상업법이 개정되면서 ‘판매’의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황주희, 2023: 117~119). 이로써 국가가 상업 활동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북한의 주요 소비재 제품 중 식료가공품 생산의 다양화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식료품의 국내 생산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식료가공품, 휴대전화, 의류 등은 생산이 전문화되어 북한 전역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최지영 외, 2023: 282~283).

2010년 이후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로 종합시장, 국영상점, 직매점 등의 상업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 시기 특징 중 하나는 북한 당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대형 소매 유통업을 신설하거나 외국 기업과 합영·합작을 통해서 유통업에 진출한 것이다. 평양의 광복지구에 위치한 ‘광복지구 상업중심’은 2012년 북한이 중국과 65:35로 합작하여 (구)광복백화점을 개건하여 현대화한 대형유통시설이다. 2015년 10월에는 평양의 중구역에 ‘창광상점’이 새롭게 개건하였는데, 기존의 시설을 2배로 확장하고 현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석기 외, 2017:90~97). 《조선신보》는 ‘창광상점’에 매일 5천~7천여 명의 고객이 방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조선신보》, 2015.12.2). 대성백화점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2019년에 준공식을 진행하였다(《노동신문》, 2019.4.15). 평양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과거 백화점의 경우 전시하는 장소였으나, 김정은 시기의 백화점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황주희, 2023: 137).

2) 구매력 강화

시장의 확대는 북한의 구매력 강화를 대변한다.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평양의 공식시장은 2016년 기준 총 30개에서 2022년 총 31개로 1개의 시장이 더 확장되었다. 평양시 강동군에 위치한 강동시장은 2016년 대비 면적이 11,545m²에서 17,870m²로 확대되었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서 밝힌 평양의 인구(3,255,288명)와 2022년 시장 수(31개)를 대비하면, 평양 공식시장 1개당 인구 대비 평균은 105,009명의 인구를 소비층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전역으로 보았을 때, 2016년 기준 404개의 시장이 2022년에는 414개로 확장되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2016년 대비 105,060m²가 증가하였다(홍민 외, 2016: 21, 홍민 외, 2022: 85).

한편, 인구의 증가는 북한의 구매력 강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된다. 북한의 전체 인구는 2019년 기준 25,448 천명으로(DPRK, 2021: 7) 평양에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2%인 약 3,133 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양시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3년에서 2020년 중 평양의 인구는 약 25.9%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 세대수의 경우, 1994년에서 2020년 중 약 18.4만 세대가 늘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주영, 2024: 92).

김정은 시대 북한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평양시의 부동산 건설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성된 미래과학자거리(2015 준공) 500세대, 려명거리(2017 준공) 4천 세대, 송화거리(2022년 준공)와 화성거리(2023년 준공) 등 각각 1만 세대 등 2만 5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다.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평양시 5만 세대 건설사업을 목표로 제시하고 해마다 1만 채씩 주택단지를 짓고 있다(《연합뉴스》, 2023.5.6). 김정은 집권 이후 창광거리, 천리마거리, 보통강강안주택구, 미래과학자거리, 창전거리 등 북한의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등 대동강 이북의 본평양 지역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는 본평양 지역 상권의 세대수 증가로 주거인구, 유동인

〈그림 2〉 김정은 시대 평양의 주요 건설사업



자료: 《조선신보》(2024.5.2).

구 등 상권배후지가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 교통 인프라 확충

평양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도로 인프라 재정비에서 확인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도로의 질적 발전을 강조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2년에 평양도로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의 공동구호로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화’를 지정하였다. 2014년에는 전국적 도로망 완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도로의 질적 개선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양에 다양한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평양의 도로는 집중적으로 재정비되었다. 한편, 평양의 관광상품 중 하나로 자전거 관광상품을 출시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였다(황주희·남성욱, 2019: 123~125). 2015년 미래과학자 거리를 조성하면서 왕복 4차선이었던 기존의 중심도로를 6차선으로 확대하였다. 2022년에는 보통강 강안다락식주택구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재포장하였고 같은 해 송화거리가 조성되면서 8차선 왕복도로가 신설되었다. 2022년 화성지구 개발이 착공되면서 새로운 다리와 도로가 건설되기

도 하였다(홍민 외, 2023: 22~24).

평양의 대중교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시내버스이다. 무궤도전차망은 78km에 이르는 10개 노선, 4개의 궤도전차망(평양역~만경대, 낙랑~문수, 평양역~서평양, 송신~대동교), 지하철 3개 노선(천리마선-혁신선-계획선), 시내버스 33~36개 노선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석기 외, 2017: 108~129). 2022년에는 평양 무궤도전차 노선이 추가되었는데, 이 노선은 보통강안다락식주택구 앞을 지나는 북새강안도로에 위치하여 화력-서평양 무궤도전차노선을 보통문옆에서 돌려 무궤도전차가 북새강안거리와 영웅거리를 지나 지하철도 혁신역쪽으로 운영한다. 보통강안다락식주택구앞으로 노선버스로 새롭게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신문》, 2022.6.15). 이로써 보통강보통강안다락식주택구 거주자들의 보통강구역의 붉은거리2동 시장, 보통강백화점, 영웅거리의 서평양백화점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대동강다리를 지나 송화거리 방향으로 가는 선교-송화행 무궤도전차도 운영을 개시하였는데, 송화거리에는 2022년 태양절을 맞이하여 완공된 1만 세대의 살림집이 자리 잡고 있다. 선교-송화행 무궤도전차는 대동강다리 입구에서 출발해 송화거리로 운행한다(《연합뉴스》, 2022.4.16, 《노동신문》, 2024.2.15). 송화거리는 동대원구역에 위치하여 동평양백화점이 근접하고 문신1동 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화력-서평양행 무궤도전차는 경루동과 영웅거리, 혁신거리를 거쳐 운행한다(《연합뉴스》, 2022.4.16). 경루동 인근에는 평양제2백화점, 영웅 거리에 인근에는 서평양백화점이 위치하고 있다.

사동구역의 송신시장은 송신역과 근접하고 궤도전차사업소가 위치하여 평양의 중심지와 거리가 있으나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이 궤도전차의 경우 평양 만경대구역에서 송신역까지 운영하여 평양의 중심지에서 접근성이 원활하다. 또한 송신 지역은 평양 외곽의 교통 요충지로 원산, 개성, 황해도 등 전국 각지와 연계되어 있어서 물류 유통에 강점이 있다(홍민 외, 2016: 77~79). 강동시장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강동군, 강동읍지구개발지역과 근접한 거리로 이전하여 시장의 접근성이 좋아졌다(홍민 외, 2022: 97).

〈표 5〉 평양 무궤도전차 주요 노선

평양역~연못동	평양역-영광거리-승리거리-김일성광장-제1백화점-창천거리-만수대-칠성문거리-개선문-개선거리-보투남거리-와산거리-3대혁명전시관-연못동
개선문~황금별	개선문-모란봉거리-봉화거리-유경호텔-황금별
문수~2백	문수-산원거리-동대원거리-옥류교-승리거리-제1백화점-김일성광장-제2백화점
사동~1백	사동-대학거리-동대원거리-옥류교-승리길-제1백화점
서평양~평양역	서평양역-상신거리-인흥거리-모란봉거리-봉화거리-류경호텔-신원거리-보통문-천리마거리-서성거리-평양역
화력~서평양	평양화력발전소-평천거리-천리마거리-보통문-신원거리-류경호텔-봉화거리-모란봉거리-인흥거리-상신거리-서평양역

자료: 《아웃소싱타임스》(2018.8.24).

평양의 무궤도전차 주요 노선을 보면 제1백화점과 제2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을 포함하고 있어서 백화점의 경우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용이하다.

평양에는 천리마선, 혁신훈, 계획선, 국철 총 4개의 지하철-국철 노선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노선이 대동강북에 집중되어 있다. 지하철의 경우 신규 인프라의 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교통수단의 측면에서는 2015년도부터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철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노동신문》, 2015.11.20).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여 2022년부터 평양에 ‘시계버스’라고 불리는 이층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층 버스는 전승탑-락랑, 대성산-만경대 등의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다(《노동신문》, 2023.10.1). 락랑구역에는 락랑시장이 있다. 대성구역의 9.9절거리 인근에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중 하나인 9.9절거리지구가 조성되고 있으며 만경대구역에는 당상시장, 칠골시장, 광복지구상업중심이 있다.

한편, 북한의 택시사업은 2000년대 후반 정도에 새로운 운수업으로 등장하여 발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기준으로 평양에만 다섯 개의 택시 회사가 영업 중이며 2019년 기준, 평양의 택시가 6,000여 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씨비차(서비스차), ‘별이버스’ 등의 소형 버스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발달은 시장거래 확대와 시장 활

〈그림 3〉 평양 지하철·국철 노선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년 11월 23일

등을 통한 수입 활동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유통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석기 외, 2017: 108~129; 《한겨레》, 2019.4.24).

상권 형성에서 교통이 중요한 것은 크기에 따른 교통망이 유동인구와 상권으로의 접근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자동차의 사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권 형성의 조건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광복 지구상업중심 앞에 즐비한 택시, 구입한 제품을 택시 트렁크에 싣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등과 관련된 보도들은 북한 주민들의 소비 활동에 택시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4. 평양 상권의 정치경제적 함의

1) 북한 당국의 통제에 따른 상권의 형성과 발달

일반적으로 상권과 입지를 분석하는 목적은 최적의 이윤창출 후보지를 찾기 위함이다. 북한의 경우 점포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존재하지 못한다. 이는 토지의 국유화로 토지이용계획, 용도가 규제되어 있으며 도시의 계획권과 개발권이 모두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원, 2004: 244). 북한에서는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원하는 지역에 상점을 건설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매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상업 부문에서 상점, 식당, 편의봉사망(서비스업)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진행한다(국가정보원 편, 2022b: 88~89). 북한은 내각결정 제24호를 통해 무역회사의 국영상점, 식당 임대를 허용하였다. 이후 무역회사가 국영상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국영상점 내 매대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개인이 기관과 기업소의 명의를 임대하여 상점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형식이 만연화되고 있다(김영희 외, 2015: 125). 개인이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점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지배인을 통해 임대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돈주와 같이 자본을 축적한 소위 자본가들은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상점을 고르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조건은 '비어 있는 상점'이다. 즉, 운영 중이지 않은 상업편의시설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된다. 운영 가능한 상점을 찾은 후 그 상점의 지배인과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상점의 임대가 가능하다.

결국 평양의 상권은 북한 당국의 개발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도매·소매·음식·숙박·생활서비스·금융·부동산·학문·교육·의료복지·문화예술·종교·관광·여

가·오락 등의 시설물이 집적되거나, 특히 대형 시설물이 집적되면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서 시설물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북한 당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상권은 갑자기 변동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상권을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시장참여의 주체로 북한 당국이 참여하면서 당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상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2) 북한 당국의 재정 확보

상권의 발달은 북한 체제의 장기적인 편익을 변화시킨다. 여기서 편익은 체제안정으로, 북한이 상권을 발달시킴으로써 '체제안정'에 수반되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될 때, 점진적으로 상권을 발달시킨다고 본다.

과거 공급의 부족으로 사실상의 국영상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소비자들이 필요한 소비품을 시장에서 구매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국영상점망 활성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상업망 운영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은 시장 외에도 국영상점을 통해 소비품을 구매하고 있다. 즉, 북한 당국이 시장참여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소비의 공간이 다원화되고 있으며, 소비 공간에 따라 소비 계층도 초보적이지만 다층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 보편화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공식 부문의 경제활동 영역이 공급과 판매로 확대되면서 국영상점망, 백화점 등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으로 회수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공기업의 외양을 띠고 개인이 상점을 운영하는 현상이 만연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임대업을 통해 최종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는 북한 당국이다. 일반적으로 상권은 임대 수수료를 기본으로 경영되는데, 안정적인 상권일수록 임대료가 높아진다. 따라서 평양의 상권이 발달하고 강화될수록 북한 당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능력을 강화시킨

다. 결과적으로 평양시 상권의 발달은 북한의 체제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유통 활성화의 목적이 북한 당국의 자금 확보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신문》, 2020.3.7).

이에 더해 상권의 발달은 상권에 입주한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돈주를 관리하고 감독하기에도 용이하다. 상권의 형성과 발전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3) 북한 당국의 경제 시스템 투영

평양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위해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이 원칙에서 도시의 상권은 고정되어 있다. 평양시의 상업 기능 배치는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주택지역과 소구역 계획에 의거하여 결정되었다(김원, 2004: 262). 이때 상업 기능은 주민에 대한 공급(배급)사업으로 접근하면서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생활 편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상품망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상업망은 주민들의 분포상태, 도농촌 발전전망, 개별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대, 공공장소에 접근시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백과사전출판사, 2010: 210, 231).

평양의 평천구역의 경우 도시계획 따라, 공장·기업소 밀집지역으로 설계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기업의 자체적인 판매 활동이 허용되면서 평천구역은 최근 평양에서 국영상점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구역으로 파악되었다.

평양에서 상권이 발달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입지를 고려하여 결국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평양 도시의 공간적 성격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병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권의 확대이다. 즉, 제도적 상호보완적 성격이 도시공간에 투영되고 있다. 평양의 상권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운영 원리를 제도 내로 포섭하고 활용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평양의 상권을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상권으로 유형화하고 상권의 발달요인을 공급의 확대, 구매력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평양의 중심구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있다.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 등 대동강 이북의 평양 중심지역에 상업시설이 집중된 것을 파악하였다. 평양의 총 11개 백화점 중 6개의 백화점이 중구역에 있으며, 동평양백화점과 대성백화점을 제외한 9개의 백화점이 모두 대동강 이북 지역에 있다. 평양의 31개 시장 중 45%의 시장, 평양에 2천 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시장의 62.5%가 평양의 중심구역에 있다.

북한 상권이 발달하는 배경은 크게 공급의 확대, 구매력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다. 북한 상품 공급의 확대는 국영상점망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시장의 확대와 평양시 인구 증가는 북한의 구매력 강화를 설명한다. 평양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도로 인프라 재정비에서 확인된다. 상권 분석에서 교통망은 유동 인구와 접근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평양의 상업시설, 주거시설, 교통체계의 집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평양의 상권을 확대시킨다.

평양 상권의 정치경제적 함의는 첫째, 북한 당국의 통제에 따른 평양 상권의 형성과 발달이다. 평양의 상권 조성은 북한 당국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며 평양의 상권은 북한 당국의 개발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대형 시설물이 집적되면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서 대형 시설물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북한 당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상권은 갑자기 변동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상권을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요구된다. 둘째, 상권의 발달은 북한 당국의 재정 확보에 기여한다. 평양의 상권 발달은 북한 당국의 임대료를 통합 수입을 증가시킨다. 더불어 내수시장에서 공식 부문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영상점망의

매출이 북한 당국으로 회수된다. 이는 북한의 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능력을 강화시킨다. 셋째, 평양의 상권은 북한 당국의 경제 시스템을 투영한다. 평양 도시의 공간적 성격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병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권의 확대이다.

북한의 도시, 특히 평양은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투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양시의 상권은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반영한다. 평양의 상권은 변화하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기존의 평양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계획경제의 보완적 차원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포용하면서 생기는 변화가 도시공간에 상권의 발달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권에 관한 초기 연구로 점포의 수와 크기, 유동 인구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으로 상권의 분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시의 상권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업종 별 상업시설, 평양시 유동인구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실질적인 평양의 상권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접수일: 2024.05.14.

1차심사완료일: 2024.06.10.

1차수정완료일: 2024.06.15.

2차심사완료일: 2024.06.17.

게재확정일: 2024.06.17.

최종원고접수일: 2024.07.03.

Abstract

**Pyongyang's Commercial District:
Typology and Development Factors with Political Economy Implications**

Joo Hee Hwang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mmercial district in Pyongyang, North Korea, under Kim Jong-un's regime. The commercial areas in Pyongyang are classified into alley commercial districts, developed commercial districts, and traditional market districts based on the loca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se commercial districts under Kim Jong-un's rule can be summarized as the expansion of product supply, strengthening of purchasing power, and expans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distribu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in Pyongyang are as follows: firs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mmercial districts are under the control of North Korean authorities; second, the developed commercial districts in Pyongyang contribute to the authorities' financial security; third, the commercial districts in Pyongyang reflect the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yongyang, which were originally created as a socialist planned economy space, now reflect a mixed nature of planned economy and market economy as commercial districts develop under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n authorities.

Keywords: North Korea, Pyongyang, Commercial areas, Commercial analysis, City, Apartments, Markets

참고문헌

- 곽인옥·문형남. 2018. 「북한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평양지역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국제융합학술지》, 제32권 2호, 183~216쪽.
- 국가정보원 편. 2022a. 「평양시관리법(2014)」. 《북한법령집》, (上), 185~192쪽.
- _____. 2022b. 「사회주의상업법(2021)」. 《북한법령집》, (下), 88~101쪽.
- 김갑식·전영선·김일한·이무철·장철운. 2021. 「북한지식사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김미연. 2024. 「평양의 시장」. 『북한 자료로 본 평양학 개론』. 민속원. 147~174쪽.
- 김병옥. 2021. 「북한 해산시 부동산 가격실태와 가격결정의 함의」. 《부동산분석》, 제7권 1호, 89~109쪽. DOI: 10.30902/jrea.2021.7.1.89.
- 김영희. 2020. 「최근 북한 소매상업의 현황」. 《Weekly KDB Report》, 11~12쪽.
- 김영희·김병옥. 2015.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117~141쪽.
- 김원. 2004. 『사회주의 도시계획』. 보성각.
- 박희진. 2018.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공간의 변화 연구 : 공적-사적공간과의 관계」. 《북한학연구》, 제14권 2호, 67~100쪽. DOI: 10.23040/kcdoi.2018.14.2.003.
- _____. 2021. 「평양의 백화점과 도시 이미지 판매전략: 콜라주(collage)와 패러디(parody)」. 《아트연구》, 제28권 1호, 97~125쪽. DOI: 10.18107/japs.2021.28.1.004
- 백과사전출판사. 2010. 「광명백과사전5: 경제」. 백과사전출판사.
- 백남길. 2018. 『상권 및 입지분석』. 백산출판사.
- 백인주. 2024. 「통계로 본 평양」. 『북한 자료로 본 평양학 개론』. 민속원. 223~250쪽.
- 사회과학출판사. 2017.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1」. 사회과학출판사.
- 양문수·윤인주. 2016. 「북한 소규모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 정량적 접근」. 《통일연구》, 제20권 2호, 45~88쪽. DOI: 10.15795/koruni.2016.20.2.002.
- 이석. 2016.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KDI FOCUS》, 통권 제78호, 1~8쪽.
- 이석기·곽인옥·김석진·김연호·양문수·이영훈. 2017. 「북한의 서비스산업」. 산업연구원.
- 이시효. 2016. 「시장도입 초기 평양 공간의 재배치: 1984~2003년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2권 2호, 65~92쪽. DOI: 10.23040/kcdoi.2016.12.2.003.
- 이주영. 2024.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분석과대안》, 제8권 1호, 통권 17호, 87~109쪽. DOI: 10.22931/aanda.2024.8.1.004.
- 정은이. 2016. 「시장의 변화와 추이: 외형과 입지」.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59~94쪽.
- _____. 2018. 「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30권 4호, 1~30쪽.
- 최중락. 2021. 『재미있는 경영학』. 상경사.

- 최지영·김수정·최은주. 20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실태」. 통일연구원.
홍민·김진하·박영자·홍제환·정은미·황진태·김혁. 2023. 「북한 주요 도시 경제 인프라 지도」. 통일연
구원·기획재정부.
홍민·차문석·김혁. 2022.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통일연구원.
홍민·차문석·정은미·김혁. 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황주희. 2023.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
조』. 통일연구원. 113~147쪽.
황주희·남성욱. 2019. 「북한의 도로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제11권 2호,
101~148쪽. DOI: 10.22809/nars.2019.11.2.004.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National Partner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신문 기사

- 《노동신문》. 2014.11.7.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착공식 진행"
_____. 2014.3.19. "<<전국가적으로 경공업을 중시하고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
다.>> 김정은)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 1.7배 장성"
_____. 2015.1.2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되었다"
_____. 2016.3.30.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정다운 소리: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 일군들과 봉사자
들의 미담을 두고"
_____. 2017.6.24. "<당의 경공업정책을 받들고 하루빨리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
키자> 경쟁속에 비약하고 또 비약하자"
_____. 2019.4.15. "수도의 거리에 멋들어지게 일떠선 종합봉사기지: 대성백화점 준공식 진행,"
_____. 2019.6.5. "우리의것을 애용하자"
_____. 2020.3.7. "[론설] 현시기 경제사업체제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_____. 2020.4.13.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한 토론> 군의 특성을 살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켜나가겠다 - 리금옥대의원"
_____. 2021.1.9.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
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_____. 2021.2.12. 당대회결정관철의 첫째 진군을 자랑찬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_____. 2022.2.8.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한 토론>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
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 김창남대의원"
_____. 2022.6.15. "[혁명일화] 새로 생겨난 무궤도전차운행로선"

- _____. 2022.8.3. “<올해 경제과업들중 급선무의 하나인 소비품생산을 강력히 내밀자> 책임을 걸 머지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 - 최근 각 도들에서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놓고”
- _____. 2023.10.1. “멋들어진 새형의 버스들이 수도의 거리를 달린다”
- _____. 2023.3.17. “보여주기사업을 정상적으로”
- _____. 2023.8.27. “평양의 변영기”
- _____. 2023.8.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 진행.”
- _____. 2024.2.15. “북반은 인민의 기쁨 송화거리에 넘쳐난다”
- 《조선신보》. 2015.2.2. “미래과학자거리 창광상점, 군수공업부문에서 생산한 상품을 판매”.
- _____. 2020.5.14. “평양에 산나물상점으로 소문난 룡흥식품상점”
- _____. 2024.5.2. “땀흘음이 추진되는 수도건설 5개년계획”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11.23. “북한 지하철 현황과 전망”
- 《RFA》. 2023.3.31. “[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주상복합 건설 바람”
- _____. 2023.7.3. “[북한 물가] 북한 ‘명품족’”.
- 《아웃소싱타임스》. 2018.8.24. “[장범석의 철도 이야기] 평양시내 교통- 지하철,노면전차와 무궤도전차 등 운행”
- 《연합뉴스》. 2022.4.16. “북한, ‘80층 아파트’ 송화거리 집들이…무궤도전차 편성”
- _____. 2023.5.6. “[장용훈의 한반도특] 제재 속 북한 ‘건설산업’만 성장…경제적 함의는”
- 《한겨레》. 2019.4.24. “시장화 바람 타고…평양에 택시·‘씨비차’ 달린다”

웹 자료

-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39c604023d543c186a2436e523e>.
(검색일: 2024.5.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7024>. (검색일: 2024.5.9)
-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search/do>. (검색일: 2024.5.9)